



## 서 위 성

《항공!》

다급한 웨침소리가 들려오자 여기저기에서 적기의 위치를 알리는 감시병들의 웨침소리가 울렸다. 이어 포탄을 장탄하는 소리와 함께 장탄수들의 《장탄끝!》하는 여무진 목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남천역이 내려다보이는 크지 않은 산등성이에 잘 위장된 고사포들이 적기를 노리고있었다.

드디어 고사포들이 불을 뿜었다.

남천역으로 달려들던 적기들이 고사포들이 있는 산등성이를 향해 기수를 돌렸다.

여기저기서 적기들이 던진 폭탄들이 터졌다. 이때 작렬하는 폭탄을 피해 은폐호로 달려가는 한 전사가 있었다.

그가 바로 갓 입대한 나어린 전사 김용익이었다.

《어딜 가? 진지를 지켜야지.》

누군가가 성이 나서 웨쳐댔다.

돌아보니 포장이었다. 그제서야 용익은 자기가 고사포병임을 깨달았다. 적기를 피해 달아날것이 아니라 적기와 대결해야 하는 고사포병.

사실 용익은 적기가 날아들면 방공호로 뛰어가는 데 습관되어있었다. 그는 1953년 봄에야 나이를 숙이고 겨우 입대한것이다.

그래서 배치된것이 고사포병이었다.

지금 용익의 중대는 주요화물역인 남천역을 지키고있었다.

방금전까지 깨끗이 정돈되어있던 역구내로 적기가 마구 던진 폭탄들이 떨어졌다.

또다시 고사포들이 불을 뿜었다. 그러자 적기들

이 고사포진지를 향해 파리떼처럼 달려들었다.

피곳 하늘을 올려다보던 용익은 누군가가 자기를 가리켜 《용익이, 넌 아직 멀었구나.》하고 비웃는 것만 같아 스스로 얼굴을 붉히며 손에 쥐었던 모자를 꼭 눌러썼다. 그렇게 하고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하여 용익은 다시금 하늘을 쳐다보고는 포있는데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을 썬 적기들의 날카로운 동음과 기총탄 소리가 머리속을 다쳐놓은 벌둥지처럼 웅웅거리게 했다.

용익이 겨우 자기 위치를 차지하자 장탄수인 유진성이 《어데 갔댔어?》하고 소리쳤다.

무섭게 성난것 같기도 했고 어찌보면 반갑다고 웃어주는듯도 했다. 흠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에서 흰기가 번쩍했기때문이었다.

용익이 다행스러워하고있을 때 유진성이 소리쳤다. 방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뭘해? 빨리 포탄을 가져와야지.》

용익은 진성의 웨침소리에 재빨리 포탄상자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그는 자기가 할일을 찾은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유진성이 고마웠다.

이제는 공포심이 어느정도 사라졌다. 그대신 조급성과 초조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군고사포들이 다시금 적기를 향하여 불을 뿜기 시작했다.

《쿵-쿠쿵.》

귀가 멍멍해졌다.  
용익은 포탄상자를 들고 달려왔다.  
진성이 그가 안고온 포탄상자를 받아주며 《좋아, 이젠 정말 열여덟살이 됐구만.》 하는 것이었다.  
용익은 자기도 놀라왔다. 사실 포탄은 무거웠다. 그것들이 들어있는 포탄상자는 더 무거웠다. (내가 포탄상자를 들고 달려오다니...)  
문득 포에 배치되던 날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나이를 물어보는 구대원들에게 어린티를 보이고 싶지 않아 두살이나 불구어 대답했다. 《동무가 무슨 열여덟살이라고 그래?》  
모두가 의아해졌다. 《열여덟살입니다.》  
용익은 단마디로 대답했다. 《야, 이 친구봐라. 만만치 않은걸.》  
용해공출신의 유진성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용익을 지켜보았다.  
용익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까운 곳에 쌓아둔 포탄상자앞에 가섰다. 그것을 들어올리면 아마 자기를 열여덟살이라고 인정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포탄상자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가벼운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인차 잦아들었다.  
용익이 입술을 앙다물고 포탄상자를 들어올렸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리를 후들거리며 걸음을 옮기자 진성은 다급히 달려가 포탄상자를 받아안았다. 《됐소. 동문 명백히 열여덟살이요!》  
...  
《쌩!》 하는 포장의 웨침소리에 용익은 정신을 차렸다.  
포가 불을 뿜었다. 《용익이, 포탄!》  
런속 장탄을 하던 진성이 용익이를 돌아보았다. 포탄을 섬겨주던 용익이 진성의 웨침소리에 날라온 포탄상자의 뚜껑을 열어제겼다.  
그런데... 그것은 빈 상자였다.  
용익의 눈이 대번에 커졌다. 《이건 뭐야?》  
용익은 진성의 격한 소리를 뒤에 떨구고 포탄상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정신없이 포탄을 날랐다.  
한번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였다. 눈앞에는 오직 포탄과 장입구, 퇴탄되는 포탄꼭지만이 보일 뿐이었다.  
온몸이 땀에 젖은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다. 용익이에게는 이것이 첫 전투였다.  
이 전투만 이겨내면 그다음부터는 어쩐지 자기가 마치 구대원으로 될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 몹시 기다리기도 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자

기가 빈 상자를 가지고올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용익은 그 실책을 씻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한 순간이었다.  
다급한 정황속에서 포탄을 섬겨준다는 것이 그만 포탄을 거꾸로 안겨주는 바람에 유진성이 다시 놓았다 쥐게 하였다.  
용익은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으나 진성은 못 본척 했다. 그저 혼자 별신 웃었을 뿐이었다.  
《용익이, 힘을 내라. 첫 전투를 이겨내야 해. 자, 장탄! 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라!》  
유진성이 두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청껏 소리치자 조준수와 포성원들이 《죽음을 주라!》 하고 웨치며 적기를 향하여 포를 쏘았다.  
포탄은 명중되었다.  
적비행기 한대가 검은 연기를 토하며 떨어졌다. 《만세!》  
포성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환성을 올렸다. 유진성은 얼결에 용익이를 얼싸안았다.  
용익은 자기가 유진성의 품속에 새처럼 안겨있음을 깨닫고 숨이 막혔다. 기쁨인지 환희인지 알 수 없는 북받치는 감정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는 짙은 눈물에 젖은 흠뻑지가 입안으로 흘러드는것을 느끼며 다시금 뛰어가 포탄상자를 날랐다.  
이상했다. 그렇듯 무겁게 겨우 들던 포탄상자가 자기의 어깨에 단숨에 hing 올라가는 것이었다.  
남천역에 대한 폭격은 매일과 같이 계속되고 있었다.  
새해벽두부터 벌린 모험적인 《신공세》의 기도가 여지없이 대참패로 끝나자 놈들은 더 많은 폭격기들을 들이밀어 조국땅 방방곡곡에 폭탄을 뿌리는 것으로 대답해나섰다.  
특히 전선수송물자를 실어나르는 철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감행하여 기울어져가는 전선형편을 둘러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모든 전선물자들이 집중되는 남천역을 적기로부터 지켜내는가 못 지켜내는가 하는 것은 전선형편을 좌우하는데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였다.  
적기들이 불에 타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군의 고사포화력은 더욱 세졌다.  
마침내 적기들은 쫓겨갔다.  
용익은 주위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을 때에야 전투가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맥을 잃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때에야 전혀 느끼지 못했던 매캐한 화약내며 나무타는 냄새, 천타는 냄새를 가려볼수 있었다.  
코와 눈을 찌르는 냄새와 연기에 그는 눈을 감

았다.

《용익이, 장해. 첫 전투를 이겨냈거든.》

조준수 김명남이 용익의 모자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하는 말이였다.

《용익이, 물을 마시라구.》

유진성이 물통을 주었다.

《우리 열여덟살이 정말 장하거든.》

진성의 말에 대원들이 웃으며 모여들었다.

《전사 김용익, 일어섯!》

포장의 엄한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긴장해진 속에 용익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자세를 취했다.

《위장망을 어떻게 했소?》

그때에야 대원들은 용익이 위장망이 없이 전투에 참가한것을 알게 되었다.

《저… 배낭에…》

《위장망은 배낭에 넣으라는것이 아니요.》

포장은 쓰겁다는듯 입을 다시며 돌아섰다.

용익은 머리를 깊이 숙였다.

《용익이, 뭘하고있어. 빨리 가서 위장망을 가져와야지.》 하고 진성이 말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포장의 엄한 목소리와는 너무나도 대조되어 오히려 친근하고 살뜰하게까지 느껴졌다.

용익은 그제야 편득 정신을 차리고 은폐호로 뛰어갔다.

은폐호로 뛰어가는 그의 얼굴은 화로앞에 서있을 때처럼 별절게 달아있었다.

용익은 자기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밝혀와 어찌 할바를 몰랐다.

적기의 폭격을 피해 비겁하게도 은폐호로 뛰어가던 모습이며 빈 포탄상자를 날라오던 모습… 그리고 부모님들의 복수를 하겠대구?!

용익은 자기를 바래주던 고향사람들이며 어린 동생앞에서 머리를 들수 없었다.

부끄러웠다. 그리고 수치스러웠다. 그들앞에서 용서를 빌고싶었다. 다시는 그런 비겁분자가 되지 않을테니 믿어달라고.

용익은 이런 생각에 잠겨 배낭에서 위장망을 꺼내들었다. 다시 포진지로 뺨다 달려오던 용익은 그만 그 자리에 굳어진듯 서버렸다. 구대원들의 심각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던것이다.

《내가 잘못했소. 난 용익이가 신입병사라고 말만했지 전투에 참가할수 있는 마음속 준비를 잘해주지 못하였소. 오늘 일은 다 포장인 내 잘못이요.》

《아닙니다. 결함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잘 도와주었더라면 위장망이 없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절 비판해주시시오.》

이것은 조준수 김명남의 말이였다.

《잘못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겪는 일이라고 범상히 생각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시다. 그러다나니 포탄상자가 있는 곳을 제대로 대주지 못하고 마구 큰소리만 쳤습시다.》

그들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무겁게 울려였다.

육중한 포장이 그들의 말을 듣는듯 했다.

《우리 다같이 용익동무를 잘 도와줍시다.》

포장이 나직하나 무게있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더는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용익은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포장동지!》

《용익이, 어서 위장망을 두르지요.》

그들은 용익이를 가운데 놓고 준비한 풀들과 나무가지들을 위장망에 꽂아주며 한마디씩 하였다.

《용익이, 우리 다음전투에서는 더 잘 싸우자구.》

진성이가 용익이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자, 이제 우리모두 진지보수작업을 합시다.》

포장이 이렇게 말하면서 용익의 손을 짝 잡았다.

그러자 진성이, 명남이 등 구대원들이 용익의 손을 덧잡았다.

그들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다.

전투에서 단련될대로 단련된 무쇠주먹들이었으나 이 순간만은 그 주먹들이 한 전사를 위해 뜨겁게 달아있었다.

그들의 눈은 무한한 사랑과 정으로 하여 더없이 그윽했고 별빛마냥 반짝였다.

높뛰는 그들의 심장은 용익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용익동무, 우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오. 우리에게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이 계시기때문이요.》

하지만 미국놈들에게는 이런 신념이 없소. 그놈들은 돈에 팔려온 고용병들이지. 그런 놈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조국강토를 지키려고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킬수 있겠소? 어렵도 없는 일이지.

그러니 이 신념만 있으면 그 어떤 적과의 전투에서도 우리는 승리할수 있소.》

《고맙습니다. 다음번 전투부터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적기를 맞받아 명중탄을 안기겠습니다.》

용익은 이렇게 마음속 대답을 하며 육중한 포신과 포체를 바라보았다.

이 포를 다루었을 사람들, 전쟁이 일어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병사들이 바로 자기처럼 이렇게 용감한 병사로 자라났으리라.

용익은 새롭게 결심을 가다듬으며 손에 쥘 보병삽으로 힘차게 진지보수작업을 시작하였다.

온몸에서 새힘이 부쩍부쩍 솟구쳐올랐다.